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녹색교류운동, 희망의 재출발

**도**농녹색교류연대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농업기술진흥관(본회/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총회를 갖고 2003년도 사업계획을 통과시키고 주요 임원들을 보선했다.

이 날 기존 대표인 최성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씨, 이동희(농민문화회)씨, 이형모(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씨, 홍월표(미래가족문화연합회)씨, 강춘성(전국농업기술자협회)씨, 안학수(한국양명회)씨외에 새로 정상목(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씨와 류재춘(한국관광농원협회장)씨를 공동대표로 추가 선임하고 손상목(단국대학교 교수/한국유기농업연구소장)씨와 이태근(흙살림 대표)씨를 감사로 선임했다.

최동주 사무처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총회에서 강춘성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조직을 만든지 1년이 지났다"고 회고하면서 "소비자와 농민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농업과 농촌을 지키는데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 조직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무희 농림부 농촌진흥과장이 도농녹색교류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조 과장은 "WTO체제 하에서 농촌소득을 위해 그린투어리즘(농촌관광)을 장려하게 됐다."며 "지난해 18개 마을을 녹색농촌시범마을로 선정하는데 이어 올해는 26개마을로 늘렸고, 내년에는 60개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를 기념해 안학수 회장이(한국양명회) '바른 식(食) 습관'을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도농녹색교류연대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강춘성)를 비롯해 농민단체 및 시민·환경·소비자관련 40개 단체(아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업농신문 기사 전제 / 4월 29일(화)〉

### 도농녹색교류연대 참가 단체

공동체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 농민문화회, 농민신문사, 단국대학교 한국 유기농업연구소, 대한어퇴자협회, 더불어살기생명 농업운동본부, 미래가족문화연합, 생활개선중앙회,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시민의신문, 아시아유기농업연구기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농회, 친환경정밀농업 연구회, 팜스테이전국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관

광농원협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신림경영인협회,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한국양명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인간학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지속농업산학 연구회, 한국환경교육협회, 한살림, 한탄강네트워크, 향토지적재산본부, 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흙살리기참여연대, 흙살림(가나다순)